



즉시 배포용: 2018 년 11 월 14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우드버리 커먼 프리미엄 아울렛(WOODBURY COMMON PREMIUM OUTLETS)에 허드슨 밸리/캐츠킵 웰컴 센터(HUDSON VALLEY/CATSKILLS WELCOME CENTER) 개장 발표

지역 게이트웨이로서 현지 명소, 음식 및 음료를 홍보할 것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오렌지 카운티 센트럴 밸리의 우드버리 커먼 프리미엄 아울렛(Woodbury Common Premium Outlets)에 위치한 허드슨 밸리/캐츠킵 웰컴 센터(Hudson Valley/Catskills Welcome Center) 개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본 웰컴 센터는 뉴욕주 전역에 건설 중인 11 개 센터 중 하나로, 허드슨 밸리와 캐츠킵 휴양지의 현대적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는 주 전역의 현지 관광산업, 식품업, 크래프트 음료 산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뉴욕주의 노력을 뒷받침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드슨 밸리와 캐츠킵 지역은 뉴욕주에서 가장 인기있는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본 웰컴 센터로 이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지를 조명하고 관광산업을 보다 촉진할 것입니다. 이번 투자로 새로운 방문객과 재방문객을 유치하여 향후 수십 년간 지역 경제를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드슨 밸리와 캐츠킵 지역은 일년내내 즐길 수 있는 명소와 휴양 활동으로 방문객을 끌어들입니다. 새로운 웰컴 센터는 지역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방문객께 지역 식품 및 음료 선택지를 제공하고 관광산업을 증진하여 경제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뉴욕주 전역의 웰컴 센터가 개선되면 더 많은 방문객을 맞이하여 뉴욕주가 선사하는 최고의 즐길거리를 선보일 수 있게 됩니다.”

지역 관광산업은 우드버리 커먼 마켓 홀(Woodbury Common Market Hall) 건물에 자리한 허드슨 밸리/캐츠킵 웰컴 센터의 핵심 현안입니다. 지역 관광지와 명소를 조명하는 270도 랩어라운드 비디오 스크린이 방문객들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방문객들은 대화형 I LOVE NY 키오스크로 지역에 관한 지식을 테스트하거나 여행 일정을 계획할 수 있으며,

대형 플로어 맵이 방문객께 두 지역 정보 개요를 제공합니다. 공예품 벽에는 이 지역의 유산을 보여주는 특별 기획 아이템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Taste NY 마켓에서 지역 전역에서 생산 및 제조된 상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설리번 카운티의 코넬 협동 조합(Cornell Cooperative Extension)이 Taste NY 마켓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당 마켓에서는 장인이 만든 잼, 메이플 시럽 제품, 꿀, 과자, 크래커, 그래놀라, 유기농 스킨 및 헤어 케어 제품, 뉴욕주 목재 그릇 제품 등의 지역 생산 식품 및 기념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해당 상점에서는 셔츠, 마그넷, 트래블 머그 등의 I LOVE NY 상품도 판매합니다. 현재 웰컴 센터에 상품을 납품하는 뉴욕주 생산업체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터 외부에는 거대한 I LOVE NY 조형물이 세워져 방문객들께 단체 사진과 셀카를 찍을 수 있는 상징적 장소를 선사합니다. 명예의 거리에서는 지역의 유명한 뉴욕 주민을 만나볼 수 있으며, 카페 파티오 좌석에서 휴식을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스턴 벨리/캐츠킨 웰컴 센터는 그림 같이 아름다운 휴양지 두 곳의 역사, 유산 및 세계적 수준의 관광자원을 선보입니다. 또한 쇼핑객과 방문객을 끌어들이며 뉴욕주 전역과 여기에서 즐길거리를 찾을 수 있게 합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State Agriculture and Markets)의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aste NY 는 허드슨 벨리와 캐츠킨을 비롯하여, 뉴욕주 전역의 농장, 식품 및 음료 산업을 홍보하려는 뉴욕주 노력의 핵심입니다. 우리 지역은 수십 년간 현지 사업체를 지원하고 지역 제품을 구매해 온 주민을 비롯하여 풍부한 농산업과 독특한 농촌 체험 관광 명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지역에 아웃도어 활동, 예술, 엔터테인먼트, 쇼핑, 음식을 즐기러 2,000 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기에, 새로운 휴스턴 벨리/캐츠킨 웰컴 센터가 들어선 장소는 Taste NY 에 가장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트래블러(National Geographic Traveler) 20 대 여행지 중 하나로 선정된 그림 같이 아름다운 허드슨 벨리는 세계적 수준의 레스토랑, 아름다운 정원 및 유서 깊은 주택지로 방문객들을 환영합니다. 2017 년에 그 전해보다 365,500 명이 늘어난 약 2,020 만 명의 사람들이 허드슨 벨리를 방문했으며, 방문객들이 직접 지출한 금액은 약 36 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한 지역 관광산업으로 주정부 및 지방 정부 세금 약 4 억 4,800 만 달러를 냈으며, 허드슨 벨리에서 58,000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했습니다.

동일한 이름의 산맥이 자리한 캐츠킨 지역은 탐험가와 가족 여행객 모두에게 있어 꼭 방문해야 할 관광지입니다. 하이킹과 스키, 음악 축제 및 우드스톡 축제 현장까지, 모든 여행객의 관심사를 한데 모았습니다. 2017 년 약 1,150 만 명이 캐츠킨에 방문하였으며, 총 13 억 달러를 지출하여 일자리 18,500 개 이상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 이후로 Cuomo 주지사는 역사적인 수준의 방문객 수와 직접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주 전 지역의 관광산업에 전례 없는 투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욕주는 676억 달러를 지출한 2억 4,380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수준의 관광객을 맞이하여 4년 연속 총 1,000억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관광산업은 매년 938,8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며 뉴욕주에서 세 번째로 큰 고용업체입니다.

뉴욕주 스루웨이 16번 출구에 위치한 우드버리 커먼 프리미엄 아울렛(Woodbury Common Premium Outlets)은 뉴욕주 최고 관광 및 쇼핑 명소 중 하나입니다. 해당 아울렛은 미 전역 및 전 세계에서 매년 1,3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합니다. 1985년 세워진 910,000평방피트 규모 쇼핑 센터로 쇼핑 및 소매 브랜드 250개 이상을 갖추고 있으며, 일자리 수천 개를 창출하고 매년 지방세, 카운티 및 주정부 세금 수천만 달러를 납부합니다.

우드버리 커먼 아울렛의 David Mistretta 총지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우드버리 커먼 프리미엄 아울렛(Woodbury Common Premium Outlets)에 11개 웰컴 센터 중 한 곳을 건설한다는 뉴욕주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허드슨 밸리 지역의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본 웰컴 센터가 관광객께 위대한 허드슨 밸리와 캐츠킬 지역이 선보이는 모든 관광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쇼핑객의 경험을 보다 향상시켜 줄 또 하나의 근사한 시설이 될 것입니다.”

William J. Larki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드슨 밸리는 뉴욕주 최고 관광 명소의 본진입니다. 코넬 협동조합과 같은 기관 및 지역 소매인들과 협업하여 지역사회의 산물을 홍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계속 해야 할 일입니다. 협력과 팀워크는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Steven M. Neuhaus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웰컴 센터 개장은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 커다란 승리입니다. 이 지역으로 방문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는 것뿐 아니라, 현지 생산 제품을 홍보하고 전 지역의 비즈니스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허드슨 밸리와 캐츠킬 지역에 투자해 주시고, 관광산업이 계속해서 이 지역의 경제 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Frank J. Palermo 우드버리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드슨 밸리와 캐츠킬은 일년내내 즐길 수 있는 관광지입니다. 본 웰컴 센터는 방문객들께 이 지역이 선보이는 즐거움을 직접 보여드릴 것입니다. 여행객들은 여행 중 최첨단 편의시설, 대화형 기술, Taste NY 마켓까지 갖춘 웰컴 센터를 반드시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리며, 저는 본 프로그램을 100% 지원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